일 주 문



추석맞이 자비나눔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9월 7일 홍은2동 지역어르신과 소외계층에 쌀20kg 100포대를 전달했다.



재가불자 가을산철안거

토진 장성 백양사 주지 스님은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불선원서 재가불자 가을산철안거를 실시한다.



제9회 선운문화제

경우 고창 선운사 주지 스님은 9월 24일 경내 특설행사장 및 사찰 일원서 '제9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수미정사 수계산림대법회

종연 인천 수미정사 회주 스님은 9월 18일 오전 9시 30분 대원보전서 '제2회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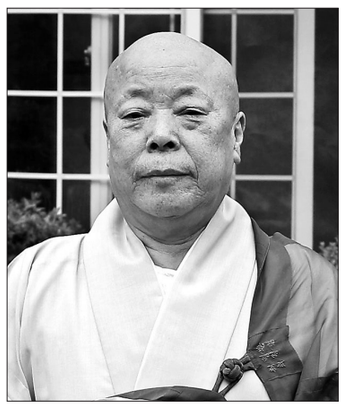


언불련 하반기 성지순례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은 9월 3일 충주 석종사와 세계미륵사서 '2016년 하반기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빈곤국가 도우며 삶 회향해야죠"

지구촌공생회에 1억 원 약정한 전주 법우사 주지 삼명 스님



공양주도 없이 평생 전법
근검절약하며 모은 기금
교육불사에 나눔 회향

"세속 나이 70세를 훌쩍 넘기고 삶의 회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기억이 많지 않아 이번에는 변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우리 지역 어르신인 월주 큰스님이 설립한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납 75세, 법랍 53세. 절에 공양주도 없이 평생 전법활동을 펼쳐온 노 비구니스님이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1억 원을 약정해 화제다. 바로 전주 법우사 주지 삼명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지난 8월 말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에 기부 약정했다.

삼명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법우사는 전주시 남노송동 기린봉 기슭의 작은 사찰이다. 절에 가려면 도로에서 비탈길을 힘겹게 걸어 올라야 한다. 겨우 사람 하나 지나다닐만한 비탈길만이 유일한 출입구다.

삼명 스님이 이곳에 부임한 것은 40년 전이다. 당시 법우사 법당은 거의 허물어져 비가 오는 날이면 바가지로 물을 퍼내야 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해 폐가와 다름없었다. 스님은 진입로도 없어 밭길을 돌아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던 도량을 정비하고, 절 이름을 법우사로 변경해 조계종단에 등록했다.

삼명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며 신도들과 함께 불사를 일으켜 12년만인 1988년 23평의 대웅전과 76평의 요사채를 건립하면서 비로소 도량의 면모를 갖췄다.

"더 이상 불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정진할 수 있는 법당과 신도들이 머물 요사채 1동이면 족합니다. 신도들이 마음 편하게 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 스님은 공양주도 없이 생활하면서도 지역 포교활동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적극 동참해 왔다. 전주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회를 지원하는 일과 군장병들을 위한 후원은 신도들도 잘 모를 정도로 암암리에 해왔다. 전북경찰청 경승들의 모임인 청불회에서 활동한 것도 10년이 넘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금산사 보리수 마을 개관에는 식기 일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스님이 이렇게 통 큰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우사 신도들의 도움이 컸다. 신도들도 스님이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본받고 스님이 하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도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스님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필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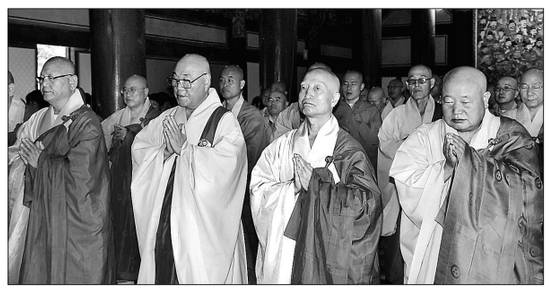
이런 고마운 신도들을 위해 스님은 매월 정기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좌를 열고 있다. 튼튼한 신행의 원동력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이제 여생을 신도들과 함께 빈곤국가 아이들을 돌보기로 작정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빈곤국가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산 대종사 19주기 추모 다례식

불국사 무설전서, 사부대중 500명 동참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19주기 추모 다례식을 9월 5일 경내 무설전서 봉행했다.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원로의원 월탄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서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일체중생은 모두 부처이니, 본래 근본자리서 생과 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강정규 대구사원聯 신도회장 취임

"불교 사회공동선 목표 위해 최선"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선지) 신도회는 9월 3일 대구 그랜드호텔서 제5대 강정규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강정규 신임회장은 "초심을 지향하며 지혜의 문을 향해 살아가는 도반들과 함께 일심 정진으로 단결하고, 불교의 사회공동선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음식·슬로푸드 교류 나서

문화사업단, 국제슬로푸드와 MOU

지난 2013년부터 각종 슬로푸드국제대회에 참가해 사찰음식과 발우공양 등을 알려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제슬로푸드와 상호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9월 6일 서울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회장 김종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사찰음식·불교문화관광콘텐츠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위한 상호교류와 함께 슬로푸드 관련 국내외 행사, 캠페인, 학술교류 등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단장 성효 스님은 "180여개 국가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슬로푸드운동에 한국불교가 함께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서구문화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그 안에 동양적인 가치를 심어 인류보존에 기여하는 운동이 되고, 국제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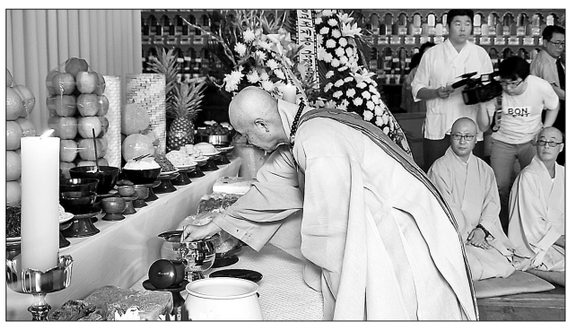
"그곳서도 설법하고 계신지요…"

조계사 · 무진장연구원, 무진장 대종사 3주기 다례

45년 간 조계사에 주석하며 대중을 위한 설법 포교에 매진했던 무진장 스님의 입적 3주기를 맞아, 후학들이 다시 한 번 스님의 큰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은 9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무진장 대종사 3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무진장연구원 이사장 법산 스님은 "무진장 큰스님은 40년을 넘게 이 도량(조계사)을 지키며 조계사와 조계종의 얼굴이 되어 왔다. 그 법음이 조계사 법당 서까래마다 구석구석 배어 있다"며 "만년이 지나더라도 그 무소유 정신, 불굴의 정신,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한 숭고한 정신은 변함없을 것"이라 무진장 대종사를 기렸다. 박아름 기자





육지장사, 다문화 힐링 템플스테이

日 · 中 · 比 등 각국 청소년 30여 명 참여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9월 3~4일 경내서 제2회 다문화가족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 일환으로 '힐링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일본 · 중국 · 필리핀 ·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 각국 청소년 30여 명이 참가한 템플스테이는 △정지윤 교수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과 교육방향' 특강 △모둠별 토론 △힐링게임 △야외명상 △108염주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육지장사 주지 지원 스님은 "사찰에서 다양한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지만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는 비교적 부족하다고 느껴 지난해부터 다문화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나라의 동량(棟梁)이 될 아이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주 노인복지회, 경로위안잔치

리윈호텔서 독거어르신 100명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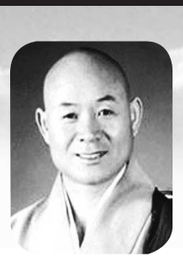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지회(회장 정인, 연꽃마을 자비원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6일 전주 리윈호텔 백제홀서 독거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정인 스님은 "생활속의 봉사를 실천하면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